

보라! 새날 떠오르는 말간 불덩이를 동해안 따라가는 새해맞이 여정

바다와 하늘과 구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떠오르는 태양은 못 사람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한다. 저 멀리 수면을 뚫고 솟아오르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광경은 장엄하고 신비로우며, 황홀하고 아름답다. 소망을 가슴에 품고 찬란한 태양을 마주할 수 있는 동해안으로 여행을 떠나본다.

글 임동근 기자·사진 임러주 기자





시간의 의미 깃든 정동진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부유하는 정동진 바닷가. 수평선 위로는 무거운 구름이 장막을 드리우고 있었다. 모래사장에 웅기종기 모인 사람들은 동쪽을 향해 서서 두런거리고, 갈매기들은 힘찬 날갯짓과 울음으로 새 날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이윽고 구름 가장자리에 선명한 금빛이 돌고, 수면에는 황금빛 비늘이 물결쳤다. 사람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깔에 감탄사를 토해내고, 침묵 속에서 구름 사이로 고개를 내미는 고운 태양을 향해 소망을 기원했다.

동해안 새해맞이 여행은 이렇듯 해돋이로 시작된다. 해돋이 명소인 정동진이나 추암해변도 좋지만 좀 더 조용하고 여유롭게 새해를 맞고 싶다면 이름 없는 한적한 바닷가를 찾아가도 좋다. 동해안에는 이렇듯 해를 맞을 수 있는 장소가 지천이다.

정동진역에서 해돋이를 감상했다면 다음은 남동쪽에 있는 모래시계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공원 한가운데는 지름 8.06m의 거대한 '밀레니엄 모래시계'가 서 있다. 해가 바뀌는 시각이 되면 위쪽의 모래가 모두 떨어져 내리고 모래시계는 반 바퀴를 굴러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알린다.

모래시계공원의 정동진 시간박물관은 8량 증기기관차 내부를 시계와 시간을 주제로 꾸민 박물관이다. 시간과 관련된 흥미로운 역사와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기 좋다.



2

1, 4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정동진 시간박물관. 2 정동진 해변. 3 새천년 모래시계.



3



4

항구와 등대, 벽화가 있는 목호

정동진에서 한화로를 따라 남쪽으로 가면 해안 풍경이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가 이어진다. 심곡항부터 금진항까지 약 2km에 이르는 구간은 구불거리는 해안길이다. 도로 안쪽으로는 쏟아질 듯 가파른 절벽이 이어지고 바깥으로는 구비를 돌 때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각양각색 기암이 모습을 드러내며 자동차의 속도를 늦추게 한다.

평온한 겨울 해변과 조그만 포구를 감상하며 남쪽으로 가다 보면 이내 목호항이다. 목호항 어시장에서는 제철을 맞은 대게가 산더미처럼 쌓여 꿈틀꿈틀 싱싱한 몸놀림을 한다. 어시장 뒤편에 있는 항구에 가면 만선의 기쁨을 환한 미소에 담고, 대게를 실어 나르는 어부들의 활기 넘치는 모습도 목격할 수 있다. 이곳 어시장에서는 다리가 떨어지거나 상처가 나 상품가치가 조금 떨어진 대게를 싼값에 구입할 수도 있다. 인근 초장집에서는 따끈하게 찐 싱싱한 대게를 배부르게 먹고 감칠맛의 게살 비빔밥도 즐길 수 있다.

항구 뒤편은 벽화로 유명한 언덕 마을인 논골이다. 언덕길을 오르면 목호항이 명태와 오징어잡이로 호황을 누리던 시절의 풍경이 골목을 따라 펼쳐진다. 그 시절 주민들의 일상과 햇볕에 말라가는 오징어, 생



5



6



7



8

5, 6 논골담길 벽화와 장화 화분. 7 버스정류장과 목호 등대. 8 목호항에서 대게를 실어 나르는 어부들. 9 논골담길 벽화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관광객들.



9

1 추암해변 촛대바위 꼭대기에 갈매기가 앉아 있다. 2 해암정.
3 이사부사자공원의 사자와 이사부 조각상.



선 파는 아주머니, 지폐를 물고 있는 개 등을 담은 벽화는 향수를 느끼게 하며 방문객의 마음에 온기를 전한다. 언덕 상부에는 하얀색 등대가 우뚝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다. 등대 꼭대기에 오르면 드넓은 바다와 울릉도 정기여객선이 들끓는 항구의 풍경이 발아래 펼쳐진다. 등대 아래 공원 벽면에는 묵호의 풍경과 잘 어울리는 최남선의 시 '해에게서 소녀에게'가 새겨져 있다. 등대공원 아래로는 바다를 조망하며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이어진다. 비탈을 따라 이어지는 탐방로와 이슬아슬 출렁다리는 걷는 즐거움도 느끼게 한다.

아름답고 고요한 추암해변

동해시 남쪽 끝자락에 있는 추암해변은 동해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해돋이 명소이다. 정동진은 연중 해넘이 인파로 북적거리지만 추암해변은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 조용하게 해를 맞으며 사색에 잠기기 좋다. 해변의 북쪽 바다에는 촛대바위, 형제바위, 거북바위, 코끼리바위 등 다양한 모양의 기암이 물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다. 특히 촛대바위는 떠오른 태양이 꼭대기에 걸리면 마치 양초에 불을 붙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조선 세조 때 한명회는 강원도 제철사로 있으면서 추암해변의 아름다움에 반해 '미인의 걸음걸이'라는 뜻으로 '능파대(凌波臺)라 부르기도 했다. 인근에는 고려 공민왕 때 삼척 심씨 시조인 심동로가 관직에서 물러난 후 지은 정자인 '해암정(海岩亭)'이 있다. 추암해변 남쪽 언덕에는 다양한 모습의 나무 사자상을 볼 수 있는 이사부사자공원이 자리한다. 이 나무 사자들은 신라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킬 때 위협하기 위해 싣고 간 나무 사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무사자전국공예대전 역대 수상작이다.



해안 풍광 미려한 새천년해안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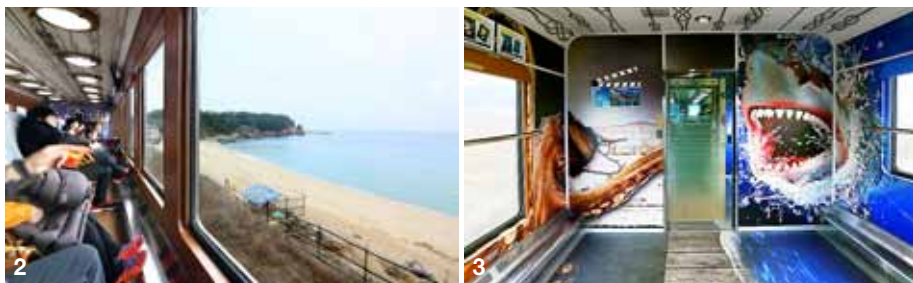
이사부사자공원 남쪽 해안도로변에는 해가사의 터가 있다. 신라 성덕왕 때 순정공이 강릉태수로 부임하다 임해정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룡이 나타나 부인을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가자 순정공이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막대로 언덕을 치며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놓아라(龜乎龜乎出水路)/ 남의 아내 앓은 죄 그 얼마나 큰가(掠人婦女罪何極)/ 네 만약 어기고 바치지 않으면(汝若悖逆不出獻)/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으리라(入網捕掠燔之喫)'란 가사의 '해가(海歌)를 부르니 용이 수로부인을 되돌려줬다는 설화가 깃든 곳이다. 이곳에는 설화를 토대로 지은 임해정과 해가사 기념비가 서 있다. 다시 남쪽으로 삼척해수욕장을 지나면 가장 아름다운 해안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로 알려진 새천년해안도로가 해변 끝에서 시작된다. 삼척항까지 이어지는 길이 4.8km의 해안도로에서는 푸른 바다를 끼고 달리며 해안선을 따라 돌출한 기암괴석을 감상할 수 있다. 해안도로 곳곳에는 자동차를 잠시 멈출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고 쉼터도 조성돼 있다. 특히 해안도로 중간에 있는 비치조각공원은 조각 작품 10여 점이 있는 곳으로, 전망대에서는 푸른 바다와 기암이 이룬 풍광을 조망할 수 있다. 또 전망대 아래에는 카페가 있어 커피나 음료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해안도로 남쪽 끝은 삼척항이다. 작은 고깃배들이 정박해 있는 작은 항구로, 주변으로는 곰치국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과 건어물을 파는 상점이 즐비하다.

4 해안 풍광 수려한 새천년해안도로. 5 오징어가 건조되고 있는 삼척항 풍경. 6 삼척항 인근 새천년해안도로의 해안 쪽에 설치된 전망 정자. 7 해가사의 터에는 사랑을 이루게 해준다는 커다란 사랑의 여의주가 있다. 8 비치조각공원.



열차 타고 감상하는 동해 바다

바다열차는 정동진에서 삼척까지 운행하는 관광열차이다. 객차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1 목호항 남쪽 도직해변을 지나는 바다열차. 2 승객들이 커다란 창을 통해 바깥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3 이색 포토존.

정동진역에서 승객을 실은 열차는 북쪽을 향해 출발했다. 커다란 차창 밖으로는 시리게 푸른 겨울 바다와 눈부시게 하얀 백사장, 바다에 점점이 떠 있는 배, 하늘에서 자유롭게 나는 갈매기 등이 있는 풍경이 펼쳐졌다. 차창을 마주하고 앉은 승객들은 감탄사를 낮게 내뱉으며 기념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다. 북쪽으로 향하는 길에는 고즈넉한 등명해변과 웅장한 퇴역 함선인 전복함이 있는 강릉통일공원을 볼 수 있다.

열차는 안인역에서 다시 남쪽으로 향하며 멋진 해안 풍경을 다시 한 번 선사했다. 정동진에서 내륙으로 접어든 열차는 터널 여러 개를 지난 뒤 옥계역에서 다시 해안을 따라 달렸다. 터널을 통과할 때는 객차 내부가 빨갛고 파란 조명으로 물든다. 기다랗게 뻗은 도직해변과 수려한 풍경의 추암해변을 지난 열차는 삼척해수욕장을 힐긋 본 뒤 삼척역으로 향했다.

바다열차는 해안선 56km를 1시간 23분 동안 달리며 동해 바다의 기경(佳景)을 선사한다. 하루 두 차례 왕복 운행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정동진에서 7시 10분, 삼척역에서 8시 50분에 각각 출발하는 아침 열차가 증편된다. 1월에 아침 열차를 이용하면 객차에서의 특별한 해돋이를 경험할 수 있다.

객차는 총 4량으로 1·2호 칸은 각각 30석과 36석의 특실, 프러포즈실 3실로 구성돼 있다. 3호 칸은 4인 1석의 가족석과 이벤트실, 4호 칸은 일반실이다. 커플을 위한 공간인 프러포즈실 이용객에게는 와인, 초콜릿, 포토 서비스가 제공된다. 상어가 아가리를 커다랗게 벌리고 있는 그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먹거리를 파는 카페도 있다.

열차 운행 중 승무원 DJ는 주변 풍경과 명소를 설명해 주고 승객들의 흥미로운 사연을 소개한다. 객차에서는 승객의 신청곡이 흘러나오고 퀴즈 이벤트를 통해 경품도 증정한다. ❶

INFORMATION



동해안 별미

곰치국

육질이 흐물흐물해 '물곰'으로도 불리는 곰치는 길이 60cm 내외로 커다랗고 징그럽게 생겼지만 식재료로는 그만이다. 특히 해장음식으로는 최고로 꼽는다. 곰치와 묵은 김치를 함께 넣고 끓인 곰치국으로 먹는데, 속풀이 음식으로는 단연 최고다.

대게

대게 제철은 찬바람이 부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이다. 특히 대게에 살이 가득한 때는 1월 중순~2월이다. 껍질이 얇고 살이 담백한 대게는 탕, 구이로도 먹지만 일반적으로는 찌서 먹는다. 겨울철 동해안 여행길이라면 싱싱하고 부드러운 게살을 맛볼 수 있다.

초당순두부

초당두부는 깨끗한 바닷물을 간수로 이용해 만드는 음식이다.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의 아버지 허엽(許曄, 1517~1580)이 광해군 때 삼척부사로 있으면서 만든 것이 시초다. 초당순두부마을에서는 두부전골, 찜뽕순두부, 육개장순두부 등을 맛볼 수 있다.

둘러볼 곳



1 하슬라아트월드

'하슬라'는 '해'와 '밝음'이라는 뜻을 가진 강릉의 옛 지명이다. 하슬라아트월드는 정동진역에서 북쪽으로 등명해변 근처 언덕에 있는 예술공원으로, 피노키오 뮤지엄과 야외 미술관으로 구성돼 있다. 뮤지엄에는 피노키오를 주제로 한 각종 설치작품이 전시돼 있고, 야외 미술관에서는 숲길을 산책하듯 거닐며 다양한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다. 033-644-9411



2 죽서루

'관동제일루'(關東第一樓)로 불리는 죽서루는 12세기 후반 이전에 창건돼 조선시대에 관아 시설로 이용된 누각으로, 현재 건물은 조선 태종 3년(1403)에 삼척부사 김효손이 중창한 것이다.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에도 언급되는 곳으로 경내에는 '송강 정철가사의 터 표석'이 있다. 죽서루에 오르면 오십천 물길이 휘도는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다. 033-570-3225

3 무릉계곡

두타산, 청옥산, 수병산이 둘러싸고 있는 계곡으로 일명 '무릉도원'이라 불린다. 계곡 입구에 있는 커다랗게 펼쳐져 있는 무릉반석을 비롯해 학소대, 선녀탕, 쌍폭포, 용추폭포, 병풍바위 등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다. 특히 용추폭포는 낙수가 바위를 기묘하게 뚫어놓은 폭포로, 용이 승천하는 듯한 모양이다.

4 대금굴·환선굴·천곡천연동굴

삼척에는 대금굴과 환선굴, 동해에는 천곡천연동굴이 있다. 대금굴에서는 백두산 천지를 닮은 천치연, 용소부잔고, 비룡폭포를, 동양 최대 석회동굴인 환선굴에서는 다양한鍾유석과 석순을 볼 수 있다. 천곡천연동굴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가지에 위치한 석회동굴로 지하세계의 신비함이 잘 보존돼 있다.

5 해양레일바이크

삼척시 근덕면 공촌리와 옹화리를 잇는 길이 5.4km 해안을 따라 운행된다.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고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레일바이크가 지나는 은하수 터널, 루미나리에 터널, 해저 터널은 저마다의 신비로움을 전한다. 공촌정거장 기준으로 오전 8시 30분부터 1일 5회 이용할 수 있다. 033-576-0656